

『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에 대한 고찰

朴炳宣·林樂哲**·尹暢烈*

對『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의 考察

朴炳宣·林樂哲·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張仲景著述의 『傷寒雜病論』一共是16卷, 可是到宋代, 在校正醫書局把『傷寒雜病論』分爲『傷寒論』和『金匱要略』兩種不同的書籍.

『金匱要略』是在張仲景의 著述中把傷寒部分除掉之後把處方添寫在各雜病項目의 後端而形成的書.

『金匱要略』全部以25編의 疾病來分編. 其中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 專門論述了五臟風寒, 五臟中寒, 五臟病例, 五臟死脈, 三焦病變, 積聚等內容, 然而本人對此五臟病, 三焦病, 積聚病進行辨證之後研究出以下의 內容

1. 五臟中風病屬於陽證, 實證의 比較多. 中寒病屬於陰證 虛證의 比較多. 因此可知風與寒의 性質不同而各代表의 病證也不同. 而且通過“五臟風寒”這個篇名可知本篇의 重點是在於內因這個方面

2. 本篇提到의 三焦病變是通過屬於三焦의 所屬臟腑來辨證而成의..而且在臟腑의 基礎上進行了八綱辨證. 本篇의 內容雖然脫簡比較多, 可是這種辨證方法附合一般雜病의 辨證原則.

3. 本篇提到의 處方有三個

一是麻子仁丸..它可治療津液不足而形成의 大便秘結

二是旋覆花湯..它可治療氣血鬱滯而形成의 肝着

三是甘薑苓朮湯..它可治療被寒濕侵襲而形成의 腰部腎着

這三個處方在臨床上有一定의 效果.

關鍵詞: 『金匱要略』, 五臟風寒, 積聚

I. 序 論

『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은 五臟中風, 中寒, 死臟脈, 五臟病, 三焦病 및 積聚 等의 질병에 관하여 論述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中風, 中寒은 『傷寒論』에서 언급한 中風, 中寒과 서로 다르며 또 한 『金匱要略』 第五篇에서 언급한 中風과도 다르

다. 즉 『素問·風論』에서 언급한 中風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證候上에서 전혀 같지 않다. 五臟의 死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內經』의 眞藏脈과 같으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前後 각 편에서 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과 비교해도 역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고대의 서로 전해지던 일종의 학설로써 작자가 있었으나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五臟病 및 眞藏脈 등의 방면 지식을 통하여 병이 內臟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소위 風과 寒은 病機를 概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五臟風寒이라고 편명을 지은 것으로써 病變의 證점이 內臟爲主임을 알 수 있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교신저자 : 유창열 · E-mail : yooney@dju.ac.kr

· 채택일 : 2004년 5월 26일

다. 三焦의 病變에 대해서도 臟腑 病變과 마찬가지로 그 기초 위에서 寒熱虛實을 結合하여 論證을 進行하였다. 그러나 본 篇의 내용에 있어서는 곳곳에 脫簡된 부분이 있는 듯하다. 때문에 문맥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 있어 역대 의가들의 주석을 참고로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五臟病, 三焦病, 積聚로 조문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정리하고 변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五臟病 및 眞藏脈

1) 肺臟病 및 眞藏脈

본 篇에서 아래의 세 조문은 肺中風, 肺中寒 및 肺眞藏脈을 논술한 것이다.

(원문1) 肺中風者, 口燥而喘, 身運而重, 冒而腫脹.

肺中風의 표현 증상은 입안이 건조하고 호흡이 가쁘며, 몸을 움직이고자 하나 무겁고 정신이 혼미하여 맑지 못하고 몸이 붓는 것이다.

(원문2) 肺中寒, 吐濁涕.

肺가 寒邪의 침범을 받았을 때의 표현증상이 입안에서 끈적이는 痰을 토하는 것이다.

(원문3) 肺死臟, 浮之虛, 按之弱如薏葉, 下無根者死

肺病이 危重할때의 맥상은 가볍게 누르면 虛弱無力하고 세게 누르면 매우 연약하고 속이 빈 것이 과잉과 같으며 만일 더 세게 눌러서 맥의 뿌리가 없으면 肺의 死臟脈이다.

이상의 세 조문을 분석해보면, 肺는 一身之氣를 주관하며 또한 津液의 輸布를 주관하는데 肺中風하고 熱化하여 津液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口燥氣喘하고 呼吸短促하게 되는 것이다. 肺는 一身의 治節을 주관하는데, 肺中邪하여 治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身運而重”하게 된 것이다. 肺氣가 通調水道와 下輸膀胱하지 못하면 水氣上逆하여 때때로 昏冒하게 되며, 水氣가 外溢하여 肢體腫脹하게 된다.

肺에 寒邪가 있으면 胸陽이 不布하여 津液이 凝

聚되기 때문에 때때로 痰涎을 토하는 것이다.

소위 死臟이라는 것은 『內經』에서 말한 眞藏脈을 뜻하며, 후세에서 絶脈 또는 死臟이라고 稱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내장에 병이 있으면 맥은 대다수가 浮하지 않는데, 지금의 脈象은 가볍게 눌렀을 때 맥이 무력하고 무겁게 눌렀을 때 특히 연약한 脈象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손으로 과잉을 누르는 듯한 속이 빈 느낌이 나타난다. 이 맥을 無根之脈이라고 하며, 肺氣가 장차 絶하려는 것이므로 “肺死臟”이라고 한 것이다.

2) 肝臟病 및 眞藏脈

본 篇에서 아래의 네 개 조문은 肝中風, 肝中寒, 肝着 및 肝眞藏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원문4) 肝中風者, 頭目暈, 兩脇痛, 行常偃, 令人嗜甘.

肝이 風邪를 받았을 때의 표현증상은 頭目眩暈, 兩脇疼痛이 있고 길을 걸을 때 항상 등을 구부리고 다니며, 임신부의 妊娠惡阻처럼 단 것 먹기를 좋아한다.

(원문5) 肝中寒者, 兩臂不舉, 舌本燥, 喜太息, 胸中痛, 不得轉側, 食則吐而汗出也.

肝이 寒邪의 침범을 받았을 때의 표현증상으로 환자의 두팔이 오그라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허뿌리가 건조하며 항상 탄식하고 흉중에 동통이 있으며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고 먹으면 곧 구토할 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게 된다.

(원문6) 肝死臟, 浮之弱, 按之如索不來, 或曲如蛇行者死.

肝死臟의 脈象은 가볍게 눌렀을 때는 軟弱無力하고, 무겁게 눌렀을 때는 새끼줄이 끊어지듯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脈象이 구불구불한 것이 뱀이 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병정이 매우 위중한 상태이다.

(원문7) 肝著, 其人常欲蹈其胸上, 先未苦時, 但欲飲熱, 旋覆花湯主之.

肝著病에 걸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가슴을 두드리도록 하고, 통처에 발작이 아직 없을 때에도 뜨거운 물만 마시려하는데 旋覆花湯으로 主治할 수 있다.

이상의 네 개 조문을 분석해보면, 간맥은 脇肋에 분포되어 있고 目系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마로 올라가 정수리 부분에서 督脈과 만난다. 肝中風邪하여 風勝하면 動하게 되므로 頭目顫動하고 兩脇作痛하게 된다. 肝은 또한 主筋하므로 肝病이 發生하면 筋脈이 失養하므로 勁強不舒하게 되어 항상 행동에 障礙를 받는다. 『內經』에서는 “肝苦急, 急食甘以緩之”라고 말했다. 風從燥化하면 간에 損傷되어 筋急하게 되기 때문에 患者는 甘味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肝이 寒邪를 받으면 筋脈이 拘急하기 때문에 두 팔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肝脈이 喉嚨의 뒤를 지나 舌本에 絡하기 때문에 寒鬱化熱하여 絡脈失濡하면 舌本이 건조하게 된다. 肝氣가 鬱結되면 정상적인 條達작용을 하지 못하므로 “喜太息, 胸中痛, 不能轉側”하게 된다. 肝邪犯胃하면 肝胃의 기가 모두 逆하기 때문에 食後에 곧 토하게 되며, 토하는 것으로 인하여 嘔도 나게 된다.

肝脈이 本來 弦하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緩和 弦長해야 비로소 平脈이 된다. 조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볍게 누르면 無力하고 무겁게 누르면 弦硬하여 조금도 緩和한 脈象이 나타나지 않으니 곧 胃氣가 없는 것이다. 또한 弦硬한 脈象이 때로는 나타나고 때로는 그치는데, 이것은 肝의 眞氣가 장차 끊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死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肝着은 간의 氣血鬱滯로 인하여 發生되는 疾患이다. 그 症狀은 胸脇痞悶不舒하며 심지어 痛脹하기도 한다. 손으로 가슴부위를 누르면 頓기로 인하여 氣機가 운행되므로 약간 좋아지는 감이 있다. 疾病의 發病초기에는 병이 氣分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마셔서 氣機를 소통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병이 오래되어 絡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록 따뜻한 물을 마시더라도 痛症이 제거되지 않으니 旋覆花湯을 使用해서 治療해야 한다. 原方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주가들은 婦人雜病篇의 旋覆花湯을 使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히 참고할 만 하다. 이 處方은 下氣散結, 活血通絡한다. 方中에 使用된 旋覆花는 下氣散結하는데 使用하고, 蔥葉은 通陽, 新絳은 活血通絡한

다. 病情이 氣滯絡阻의 병증에 屬하기 때문에 藥物 使用시에 歸尾, 桃仁, 澤蘭, 鬱金 류의 藥物을 應用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王清任의 通竅活血湯 或은 血府逐瘀湯을 使用할 수 있다.

3) 心臟病 및 眞藏脈

본 편에서 아래의 다섯 조문은 心中風, 心中寒, 心傷, 心虛 및 心の 眞藏脈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원문8) 心中風者, 翕翕發熱, 不能起, 心中飢, 食即嘔吐.

胃脘部가 風邪의 침습을 받으면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권태로우며 배가 고플지라도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토하게 된다.

(원문9) 心中寒者, 其人苦病心如啖蒜狀, 劇者心痛徹背, 背痛徹心, 譬如蠱注, 其脈浮者, 自吐乃愈.

胃脘부에 寒邪의 침습을 받으면 환자는 胃脘부에 매운 마늘을 먹은 것 같이 煩亂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증상을 느낄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면 위완부 동통이 背部까지 찢어지듯 이어지고 背部의 동통 역시 위완부까지 찢어지듯 이어지는데 그 통증은 벌레가 갇아 먹는 듯하다. 만일 환자의 맥상에 浮脈이 나타나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토하면 질병이 곧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원문10) 心傷者, 其人勞倦, 卽頭面赤而下重, 心中痛而自煩, 發熱, 當臍跳, 其脈弦, 此爲心臟傷所致也.

心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일단 조금 피로하고 권태로우며 두면부에 홍조가 있으며 또한 신체 하부가 무겁고 胃脘部 동통이 있고, 번민발열하며 臍부에 맥이 뛰는 것이 손에 느껴지며, 환자의 맥은 弦하게 된다. 이것은 心臟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원문11) 心死臟, 浮之實如丸豆, 按之益躁疾者死.

心死臟의 脈象은 가볍게 누르면 맥이 실한 것이 콩 같고 요동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며 무겁게 누르면 더욱 촉급하게 뛰는데, 이것은 병정이 위중한 것이다.

(원문12) 邪哭使魂魄不安者, 血氣少也. 血氣少者, 屬于心, 心氣虛者, 其人則, 合目欲眠, 夢遠行而精神

離散, 魂魄妄行. 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

邪病에 걸리면 슬퍼져서 울게 되고 魂魄이 不安해지는 것은 그 원인이 血氣虧少하기 때문이다. 血氣虧少는 心에 영향을 미치고, 心氣虛弱한 환자는 두려워하고 눈을 감고 잠을 자려해도 꿈속에서 먼 길을 떠나며 정신이 흩어져서 魂魄을 제어할 수 없으니 魂魄이 妄行하여 안정되지 못한다. 陰氣가 虛衰하면 陽인 魂이 浮越하게 되므로 癲證이 발생하게 되고 陽氣가 虛衰하면 陰인 魄이 안에서 요동하므로 狂證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다섯 조문을 분석하면, 心中風은 心이 風邪에 침범을 받아 風熱相搏하여 翕翕發熱하고 기운이 없게 되는 것이다. 風熱이 內鬱하면 心氣가 不舒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듯한 症狀이 나타나고, 음식이 胃로 들어가면 氣가 熱을 조장하므로 兩熱上沖하여 嘔吐하게 된다.

心中寒은 양이 음에 支配되는 것으로 陽이 內鬱하면 寒이 乘하게 되어 인체에 寒熱錯雜의 症狀을 발현케 한다. 때문에 心中에 생마늘을 먹은 것 같은 辛辣한 느낌이 있게 된다. 가령 病情이 극렬하여 흉중의 陽이 陰寒에 依하여 막히게 되면 心痛徹背, 背痛徹心하는 症狀으로 발전하여 ‘譬如蠱注’의 證이 된다. 脈浮는 正氣가 병에 저항하는 추세를 표현한 것이므로, 嘔吐하여 寒邪가 제거되어 陽氣가 伸長된 것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병은 治療하지 않아도 스스로 낫게 된다.

소위 ‘心傷’은 心氣損傷을 뜻한다. 心氣가 損傷되면 약간 피로하고, 心陽이 부월하므로 頭面部에 熱이나고 下肢는 沈重無力한 것이다. 心陽이 中에서 動하기 때문에 心中痛하고 煩熱 症狀이 나타난다. 上焦의 심이 허하면 腎氣가 아래에서 動하게 되니 배꼽부위가 뛰게 된다. 심의 平脈은 원래 圓潤滑利한데, 본 편에서는 반대로 弦勁하니, 이것은 經脈이 氣血不足으로 인하여 濡養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心平脈來, 累累如連珠, 如循琅玕”이라하여 沖和하면서 부드러운 것이 위기가 있는 脈象이라 하였다. 脈象이 살짝 늘렸을 때 實하고 힘이 있고 손으로 丸이나 콩을 굴리는 듯한 느낌이 들며, 세게 늘렸을 때 더욱 빨리 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胃氣가 없

는 死脈이다.

“邪哭使魂魄不安”의 조문은 精神錯亂의 證候로서, 그 原因은 모두 氣血虛少에 있으며, 心神이 기댈 곳이 없어서 공포의 症狀을 發生시키는 일종의 精神不安 계통질환이다. 여기에서 더욱 심해지면 心虛神亂하여 癲狂의 症狀이 發生할 수 있다. 그러나 “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에서 두 개의 ‘衰’字는 誤字라고 의심된다.

4) 脾臟病 및 眞藏脈

본 편에서 아래의 세 조문은 脾中風, 脾의 眞藏脈 및 脾約證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원문13) 脾中風者, 翕翕發熱, 形如醉人, 腹中煩重, 皮目瞶瞶而短氣.

脾에 風邪의 侵襲을 받은 환자는 불이 활활 타오르듯 열이나고 얼굴이 붉게 변하고 사지에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꼭 술에 취한 사람과 같으며, 배가 답답하고 그득하고 묵직하며 살갗이 떨리고 호흡이 촉박하다.

(원문14) 脾死臟, 浮之大堅, 按之如覆杯, 潔潔狀如搖者死.

脾死臟의 脈象은 가볍게 누르면 脈大而堅하고 무겁게 누르면 外實而中空無物하여 동여맨 것이 팽팽한 동아줄 같으면서도 흔들리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 이것은 병정이 매우 위중한 상태이다.

(원문15) 趺陽脈浮而澀, 浮則胃氣強, 澀則小便數, 浮澀相搏, 大便則堅, 其脾爲約, 麻子仁丸主之.

환자의 趺陽脈이 浮而澀한데, 脈이 浮하면 이것은 胃氣가 亢盛한 것으로 陽熱이 안에 쌓여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脈이 澀하면 이것은 小便頻數으로 津液이 이미 손상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浮와 澀脈이 동시에 나타나면 大便은 곧 단단해질 수 있으니, 이것은 胃強脾弱하기 때문이다. 脾가 胃를 위하여 津液을 순환시키는 기능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므로 麻子仁丸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3번 조문에서 ‘形如醉人’은 顏面紅潮의 症狀이 술에 취한 모습과 비슷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脾中風으로 인하여 發生한 것이다. 風은 陽邪이기

때문에 顔面색이 붉고 또한 ‘翁翁發熱’한 것이다. 脾에 濕熱이 있으면 運化가 실조되어 腹中이 답답하고 묵직하며 便安하지 않다. 脾가 濕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태에서 外部로부터 風邪의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皮肉이 跳動한 것이고, 脾가 濕하여 不運하기 때문에 氣機가 阻滯되고 短氣하게 된다.

緩和而柔가 비의 정상맥인데, 본 조문에서는 살짝 눌렀을 때 大堅하고 세게 눌렀을 때 中空하고 또한 박동이 부정확하게 뛰고 간간히 쉬기도 한다. 이것은 脾臟의 사맥이다.

脾約은 脈象으로부터 病機를 抽離한 것이다. 趺陽脈의 平脈은 당연히 伏脈인데, 본 조문에서는 반대로 浮脈이 나타나니 胃熱氣盛한 반응임을 알 수 있다. 趺陽脈이 濡한 것은 脾陰不足을 표시하는 것이다. 脾陰이 부족하면 胃가 그 津液을 運化하지 못하게 되므로 大便이 단단해지고 小便短數하게 된다. 麻子仁圓은 潤下泄熱하는 완만한 瀉下劑로써 平素 津液이 損傷되어 大便이 굳은 사람에게 使用하면 더욱 좋다.

5) 腎臟病 및 眞藏脈

본 편에서 아래의 조문은 腎着과 腎의 眞藏脈을 언급하였다.

(원문16) 腎著之病, 其人身體重, 腰中冷, 如坐水中, 形如水狀, 反不渴, 小便自利, 飲食如故, 病屬下焦, 身勞汗出, 衣里冷濕, 久久得之, 腰以下冷痛, 腹重如帶五千錢, 甘姜苓朮湯主之.

腎着病 환자의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몸이 무겁고 허리 부위가 찬 것이 찬물속에서 목욕을 한 것과 같으며, 小便은 잘 통하나 입은 마르지 않고 음식은 平常時와 같이 변화가 없다. 질병부위가 下焦에 속하면 신체가 피로한 까닭에 비교적 많은 땀이 끓이지 않고 나므로 옷 속에 어름을 넣은 것처럼 차고 축축하다. 장기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腎着病에 걸리게 되어 허리 아래가 차갑고 아프며 무거운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매우 무거운 물건을 허리에 매달고 있는 듯하다. 이때에는 甘姜苓朮湯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원문17) 腎死臟, 浮之堅, 按之亂如轉丸, 益下入尺中者死.

腎死臟의 맥상은 가볍게 눌렀을 때는 팽팽한 자

루처럼 단단하지만 무겁게 눌렀을 때는 감각이 어지럽게 마구 뛰는 것이 彈丸을 굴리는 것 같은데, 尺部에 까지 이러한 맥상이 나타나면 병정이 매우 위중한 것이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조문 16의 腎著는 腎着으로 해석되며, 요부에 寒濕이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 본 병증은 노동으로 땀을 흘린 뒤 많이 발생한다. 요부에 한습이 침범하여 양기가 고착되어 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부가 냉하고 침중한 느낌이 발생한다. ‘形如水狀’, ‘腰重如帶五千錢’은 허리가 차고 무거운 것을 형용한 것이다. 본 병증은 질병이 체간부의 국소부위에만 이환되었고, 내장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小便自利하고 음식의 섭취에 이상이 없는 것이다. 본 병은 한습이 요부에 고착된 것으로 腎 본장은 병들지 않았다. 때문에 溫腎할 필요가 없다. 甘姜苓朮湯의 작용은 주로 溫脾勝濕이며, 寒證이 심할 경우에는 附子를 가한다.

腎의 平脈은 沈하면서 和緩한 것인데, 지금 살피서 눌렀을 때 단단한 감촉이 손가락에 나타나고 세게 눌렀을 때 더욱 빠르고 무질서해지서 丸을 굴리듯 어지러우면 장차 腎氣가 끊어지려고 하는 死脈이다.

이상의 17개 조문은 五臟中風, 五臟中寒, 五臟死脈과 五臟病例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탈간된 부분도 있어서 脾服의 경우에는 단지 中風만 있고 中寒은 없다. 腎은 中風과 中寒이 모두 없다. 본 편에서 서술한 증후는 오장에 병이 들었을 경우 서로 다른 증후들을 예를 들어 열거했다는 의의가 있고, 임상상에서 참고 할만 하다. 死藏脈에 관한 것은 『內經』에서는 眞藏脈이라 하고, 後世에는 絕脈이라 한다. 내장에 병이 있을 때 맥상이 상층에서 虛弱하거나 혹은 弦硬하게 나타나는 경우, 혹은 심층에서 無根하거나 간헐적이거나 혹은 조급하고 박동이 부정확하며 조급의 부드러움도 없는 맥상이 나타났을 경우를 소위 ‘胃氣가 없는 맥’이라 하고, 故로 死脈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2. 三焦病

아래의 두 조문은 三焦病變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원문18) 問曰：三焦竭部，上焦竭善噫，何謂也？師曰：上焦受中焦氣未和，不能消穀，故能噫耳；下焦竭，即遺溺失便，其氣不和，不能自禁制，不須治，久則愈

“三焦에는 각각 그 맡은 역할이 있는데, 上焦에 寒이 있어서 항상 噫氣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묻자 스승이 “上焦는 水穀의 精微를 中焦에서 받는데, 中焦가 寒邪의 침입을 받으면 氣機不和하여 水穀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噫하게 한다. 下焦에 寒이 있을 것 같으면 遺尿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二便失禁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腎氣不和하여 스스로 固攝制止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噫氣가 있는 환자는 특수한 치료를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된다.”라고 하였다.

(원문19) 師曰：熱在上焦者，因咳爲肺痿；熱在中焦者，則爲堅；熱在下焦者，則尿血，亦令淋秘不通。大腸有寒者，多驚漉；有熱者，便腸垢；小腸有寒者，其人下重便血，有熱者，必痔。

스승의 말씀에 따르면, 邪熱이 上焦에 있는 사람은 오랜 동안의 해소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어 肺痿의 증상을 나타낸다. 邪熱이 中焦에 있으면 大便堅硬의 증상이 나타나고 邪熱이 下焦에 있으면 尿血의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小便滴瀝不暢 혹은 閉澀不通의 증상이 나타난다. 小腸에 寒이 있는 사람은 오리똥 같이 묽은 변을 보고, 熱이 있는 사람은 설사와 膿血이 나타난다. 大腸에 寒이 있는 사람은 항문이 무겁고 처지며 대변출혈이 나타나고, 大腸에 熱이 있는 사람은 치질에 잘 걸린다.

위의 두 조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 18은 上中下 三焦의 관계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上焦와 下焦 모두 中焦에서 氣를 공급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靈樞·營衛生會』에서는 “人受氣於穀，穀入於胃，以傳於肺”라고 하였다. 이는 上焦가 비록 宗氣가 소재하는 곳이지만, 中焦의 水穀의 精氣의 자양을 받을 경우에만 비로소 기화운행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

다. 가령 증초에 병이 있어서 精微를 운화하지 못하면 上焦의 기화작용 역시 곧 쇠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리어 비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곡의 운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식후에 종종 噯氣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下焦는 腎膀胱 및 小大腸이 있는 부위이다. 때문에 하초가 허약하게 되면 關門이 그 직능을 상실하게 되어 遺溺 혹은 大便不禁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不須治，久則愈”의 두 구문은 “모름지기 치료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낫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熱在上焦”라는 구문은 三焦熱證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熱在上焦”는 폐가 병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咳嗽가 발생하고 오래되면 폐를 손상시켜 肺痿가 형성된다. “熱在中焦”는 비위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脾가 胃를 위하여 진액을 輸布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변이 단단해짐을 말한 것이다. “熱在下焦”는 腎과 膀胱이 병사의 영향을 받으면, 尿血 및 小便淋秘不通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大腸有寒者” 이하의 문장은 임상증상에 따라 寒熱로 증상을 구분한 것으로, 大腸에 寒이 있는 경우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변이 驚漉하게 되고 熱이 있으면 腸垢가 나오게 된다. 驚漉은 설사와 비슷한 것이고, 腸垢는 痢疾과 비슷한 것이다.

3. 積聚의 辨證과 脈診

(원문 20) 問曰：病有積，有聚，有繫氣，何謂也？師曰：積者臟病也，終不移；聚者腑病也，發作有時，展轉痛移，爲可治；繫氣者，脇下痛，按之則愈，復發爲繫氣。諸積大法：脈來細而附骨者，乃積也。寸口積在胸中；微出寸口，積在喉中；關上積在臍傍；上關上，積在心下；微下關，積在少腹。尺中積在氣衝，脈出左，積在左；脈出右，積在右；脈兩出，積在中央，各以其部處之。

“積，聚，繫氣라는 병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라고 묻자 선생이 말하기를 “積은 五臟의 疾病에 속하며 積의 病位는 시종 이동하지 않는다. 聚는 六腑의 疾病에 속하며 때때로 나타났다가 때때로 사라지고 동통부위가 항상 이동하며 고정되어있지 않다. 때문에 聚는 치료하기가 용이한 것이다. 繫氣

의 증상은脇下疼痛이며 손으로 누르면 조금 풀렸다가 곧 다시 발생한다. 맥진과 안면 찰색으로 각종 積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脈象이 細軟하고 맥을 세게 깊이 눌러도 맥이 뛰면 곧 積病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寸口部位가 沈細緩한 것은 積이 胸中에 있는 것이고, 脈이 沈細緩하며 寸口の 윗쪽으로 약간 벗어나는 것은 積이 喉中에 있는 것이고, 關部脈이 沈細緩한 것은 積이 배꼽의 양쪽에 있는 것이고, 脈이 沈細緩하며 關의 위에 이르는 것은 積이 心下에 있는 것이고, 脈이 沈細緩한 것이 關의 조금 아래에 이르는 것은 積이 小腹에 있는 것이고, 尺脈이 結한 것은 積이 氣街部位에 있는 것이고, 脈象이 왼쪽에 나타나면 積이 왼쪽에 있는 것이고, 脈象이 오른쪽에 나타나면 積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脈象이 좌우양측에 모두 나타나면 積이 중앙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 서로다른 病位와 진행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한다.

위 조문은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積聚에 관한 논술로써 形氣와의 증상감별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다른 하나는 積聚의 맥진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소위 積이라는 것은 氣,血,痰,食을 포괄하여 말한 것이며, 병의 뿌리가 깊고 완고하여 臟病이라고 인식되고 있고 맥상은 沈細附骨하게 나타난다. 또한 어느 곳에 脈象이 沈細附骨하게 나타난다면 積聚의 소재를 추측할 수 있으므로 진단과 치료에 참고할 만한 것이다.

Ⅲ. 結 論

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은 五臟中風, 五臟中寒, 五臟病例, 五臟死脈, 三焦病變 및 積聚에 대하여 주로 논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五臟病, 三焦病, 積聚病으로 나누어 변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五臟中風病은 陽證, 實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고, 中寒病은 陰證, 虛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風과 寒은 대표적인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病證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五臟風寒이라

는 편명으로부터 본 편 病變의 重點이 內因이 主가 됨을 알 수 있다.

2. 본 편에서 언급한 三焦病變은 주로 삼초에 소속된 장부에 따라 변증에 대하여 언급하고 아울러 臟腑에 기초하여 八綱辨證을 진행하였다. 본 편の内容에 비록 脫簡이 많으나 이러한 방법의 辨證은 일반적인 雜病의 辨證原則과 부합된다.

3. 본 편에서 제시한 處方은 세가지가 있는데, 麻子仁圓은 津液不足의 大便秘結을 치료하며, 旋覆花湯은 氣血鬱滯의 肝着을 치료하며, 甘薑苓朮湯은 寒濕의 침습으로 인한 腰部의 腎着을 치료한다. 이러한 세가지 처방은 임상상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

參 考 文 獻

1. 尤怡, 金匱要略心典, 華夏出版社,
2.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3.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人民衛生出版社,
4. 김정범, 金匱要略辨釋, 한의문화사, 2000.